

# 세계 인권전문가들 광주서 시민공간·인권도시 논한다

내일까지 DJ센터서 세계인권도시포럼... 인권 활동가 등 600명 참석  
민주주의·인권 신장 거점 '시민공간' 확대방안·모범사례 등 논의

전 세계 인권전문가 600여명이 광주에서 모여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연다.  
광주시는 "10-11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민공간과 인권도시'를 주제로 열리는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 국내외 인권 활동가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다"고 9일 밝혔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시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네스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며 인권 관련 기관·단체 등 국내외 28여개 협력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포럼에는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인권 관련 전문가들이 광주에 모여 세계 인권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시민공간의 현실과 인권문제, 시민공간 확대 방안 등 이번 포럼의 주제인 '시민공간과 인권도시'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시민공간이란 개인과 집단이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하며, 건강한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의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  
행사는 10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내외 주요 인사들의 축사,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가 이어진다.  
전체회의에서는 백태웅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와 이진순 재단법인 외규 이사장, 위브케 윈터 독일 뉘른베르크시 인권담당관이 세계 곳곳에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시민공간을 둘러싼 인권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인권도시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인 시민공간의 형성, 보호, 확대방안, 모범사례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주제회의에서는 장애인, 여성 등 5개 세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부 주제는 ▲어린이·청소년(학생 시민이 만들어가는 학생자치와 세계민주시민교육) ▲여성(디지털 시민공간과 여성인권) ▲시민사회 활성화(시민공간의 확장) ▲시민사회 활성화(시민공간의 확장) ▲장애인(시민공간: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인권) ▲이주(이주민과 건강도시) 등이 다.  
국가인권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국제인권규범의 지역적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유엔인권제도 참여 촉진' 문제를 다룬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코스모스 향 맡으며 가을 정취 만끽 9일 담양군민체육센터 인근에 만개한 코스모스 정원에 행사객들이 산책하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이주여성들 "여전한 임금차별·편견 속상"

이주여성들과 광주 공동체 간담회  
출산·육아·일자리 지원 등 약속

"처음 광주에 왔을 때 5-18민주화운동과 역사를 배웠습니다. 광주는 제2고향이지만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한입니다. 교육은 이주민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집·학교 등에서 같이 살아가는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에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주여성 A씨.  
지난 7일 광주시 북구가족센터에서 열린 '광주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주여성 이야기' 간담회에선 이주여성에 대한 임금차별과 사회적 편견이 여전한 하소연이 나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이주여성들과 함께 나누는 광주공동체 간담회를 열어 광주시민으로 살아가는 이주여성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착 지원을 통한 인구 위기 대응책 등을 모색했다. 강 시장은 앞서 시장 주재 소통창구인 '월요대화'와 '정책소풍' 등에서도 외국인 지원 정책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 시장을 비롯한 중국·베트남·필리핀·키르기스스탄·몽골 등이 모국인 장춘화, 관리리, 원가빈, 박선녀, 손선화, 무사노바부부순, 한신애, 리셀에게그리모스, 이서은 씨 등 이주여성 9명과 5개 자치구 가족센터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언어와 소통, 출산과 육아, 구직의 어려움 등을 털어냈다. 또 이주여성들이 통·번역사, 다문화이해 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광주에 정착하게 된 계기, 한국생활의 어려움, 광주시의 외국인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일부 산모수첩에 다양한 언어가 지원됐으면 좋겠다", "이주민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 "영어학원에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같은 업무를 하지만 임금차별이 있어 속상하다"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또 결혼이주여성들이 운영하는 마을기업인 ㈜한누리꽃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물 설고 말도 안 통하는 이역만리 한국에 와서 광주시민으로 살아가는 이주여성들에게 감사하다"며 "이주여성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출산과 육아, 일자리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광주시는 증가하는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올해 다문화 관련 예산은 43억원으로, 지난해 29억원 대비 46%나 증가했다.  
광주시 외국인주민은 2022년 기준 4만4000여명으로 광주 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결혼이주여성은 7446명이며, 베트남 출신이 36.2%로 가장 많고 중국 31.2%, 캄보디아 7.3% 등의 순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 광주시, '포화상태' 영락공원 자연장지·봉안당 확충

자연장지 추가·제3봉안당 추진

광주시가 올 연말부터 광주 영락공원 묘지 시설 확충에 나선다. 조만간 자연장지와 봉안당 등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9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시는 12월 1일부터 광주시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제2시립묘지공원) 자연장지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  
개나리 묘역 인근과 학동저수지 인근 등 1만 5504.1㎡ 부지에 내년 말까지 자연장지 2만 5000기와 봉안당 5000기를 추가 조성한다.  
영락공원은 현재 매장시설 1만4927기, 1·2봉

안당 5만8014기, 자연장 시설 1만3432기 등 총 9만8133기의 묘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장지는 내년, 봉안당은 2026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우선 자연장지를 추가 확보하고, 봉안당 제2설 일부를 추모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제3봉안당 내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3봉안당은 239억원을 들여 4만5000기 규모(지하 1~지상 3층·연면적 6000㎡)로 짓는다. 운영은 2026년부터다.  
시는 화장장은 현재까지 가동에 여유가 있다고 보고 2026년 이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영락공원은

화장로 11기를 갖추고 있으며 하루 최대 49건을 처리할 수 있다.  
시는 올해 하루 평균 화장 건수는 35건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고령화와 함께 화장 문화 확산 등으로 증설이 시급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매일 오후 2시까지 화장장 예약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오전 중 화장 절차를 마치고 싶어 해 4일장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화장장 증설은 국비 확보와 이용률 등을 고려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여수에 국제 크루즈 입항...전남도, 관광 활성화 노력 성과

관광객 400명 방문...한글날 기념 '한글 이름 써주기' 이벤트 등 진행

승객과 승무원 400여명을 태운 국제 크루즈가 9일 여수엑스포항에 입항했다. 이날 입항한 크루즈는 프랑스 선사인 포낭사의 르 솔레알(Le Soleal) 호로 전남도의 적극적인 국제 크루즈 유치 노력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또다시 여수를 찾았다.  
전남도에 따르면 르 솔레알호는 일본 오사카를 출발해 여수에 입항한 크루즈 관광객은 이날 순천만국제정원, 여수 이순신 광장 등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 뒤 일본 후쿠오카로 돌아갔다.  
전남도는 크루즈 관광객을 위해 여수 시립국악

단 취타대 공연, 사물놀이·사자놀이와 퓨전 국악 단 공연 등 송환영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한글날을 기념해 관광객에게 '한글 이름 써주기' 이벤트를 부스를 운영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전남도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 크루즈 유치 홍보, 송환영 행사 개최, 크루즈 선사 관계자 팸투어 등을 진행하고 국제 크루즈 입항 시 관광객 1인당 1만원씩 최대 1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 9월 국제 크루즈 입항을 위한 일본 유선

크루즈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진행해 여수 오동도, 해상케이블카, 순천만국제정원 등 여수·순천 일대 관광자원 및 기반시설 사전 답사도 진행했다.  
체류 기간 크루즈 관광객이 전남의 매력을 느끼도록 여수시와 함께 주요 관광지 무료 셔틀버스 운행, 문화관광해설사 및 통역 등을 지원해 전남관광 만족도 높이기에도 힘쓰고 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11월에도 일본 유선 크루즈사 크루즈의 여수 입항이 예정됐다"며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과 2026 여수 세계박람회와 연계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전남을 찾도록 지속적인 마케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계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청정!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